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文學 教育의 韓·日 比較 研究

—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연 희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 專攻

彭 美 香

彭美香의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년 6월 일

주 심 김 상 규 (인)

위 원 신 종 대 (인)

위 원 최 연 희 (인)

차 례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대상	2
3. 연구의 방법	2

II. 교육과정

1. 국어 교과서 구성	3
2. 국어 시간 배당	4
3. 국어과의 목표와 영역	5
4. 국어 교과서의 작품	13

III. 학습지도의 실제

1. 학습목표	21
2. 「やまなし」의 수업	29
3. 문학 수업의 비교 분석	42

IV. 맺음말

참고문헌	46
부록	48

Compare project of the literature education between Korea-Japan

-In the course of the Native language text book
of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Paeng Mi Hyang
Major in Education of Japan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analyse and compare the different way in literature education in two Nation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and knowing the differences in teaching.

Our project is to compare Japan's National elementary text book YaMaNaSi the 2nd part one in the 6 grade and Korean elementary text book "Along the flow of our heart" also the 2nd part one in the 6 grade.

In our proceeding we compared the hours given to each language classes and contents of each text book.

We check the basic reasons of choosing the main titles shown in the text books.

As to know how they procceded their lessons, we analysed and compared the way of reaching through by attending in the real classes.

As a result, the differences of teaching between two Nations are as followed.

First, they have lessons with various kinds of personal views and attentions in learning some of the works in their books.

In this way, they can study one subject in very attentive mood,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remember perfectly well for the contents, also they share their own speeches in a very relaxed atmosphere after the lesson. furthermore, the children, who were not interested in the books at all, are now get closer to reach the books but there are rare opportunities to get many different works in their text books at one time.

In korean lessons we can face many different kinds of works in one part.

The children can experience the various life style through the stories but as there are too much to follow the studies in one limited lesson, they are not able to understand the main part correctly but only to get their attentions in reading and comprehension

As a result, they can easily forget what the main story was about without the impressons of the work.

In Korean way of teaching, they spend more times in the activities for only to reach for finding the main issues in reading, rather than giving it a deep thoughts for the works.

What we have found out in this project was that in Korea, the children can practise more in the comprehending through their language lessons but they can not reach to the point of the progressing in correct understanding and deep thinking of the work.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의 문학 교육의 학습 지도법에 관한 비교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문부성 검정제 교과서인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 「やまなし」의 학습 지도법을 정리하여 세미나 발표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의 학습 지도법과 크게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우선, 「やまなし」와 같은 동화 작품의 경우, 한국의 국어 수업에서는 3시간이면 충분한 것을 일본에서는 9시간의 학습 시간으로 배당하고 있는 것, 동화에서 읽기(통독, 속독, 정독)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여 학습하고 있는 것,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 내용에 관해서 쓰는 활동과 각자가 느낀 것을 서로 대화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한 작품에 대한 학습 시간은 보통 1~2시간이고 간혹 3시간의 수업이 있다. 작품 분량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여 초등학교 국어의 문학 수업 시간에는 제재 작품을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것도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3배 이상의 학습 시간을 배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외견상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실제 수업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교육과정과 학습 지도법을 통해서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의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문학 교육의 학습 지도법을 비교 분석하여 문학 학습 지도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양국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논의의 대상은 초등학교¹⁾ 6학년 국어의 문학 교육 중 소설(동화, 이야기)의 학습 지도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일본의 검정교과서²⁾인 초등학교 국어 6학년 下 1단원 「やまなし」와 한국의 국정교과서³⁾인 초등학교 국어 6학년 2학기 첫째 마당(대단원) 「마음의 곁을 따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やまなし」와 「마음의 곁을 따라」는 양국의 6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으로서 학습 시기가 같고, 문학 중에서도 소설(동화, 이야기)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두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국어 문학 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의 교육 과정에서 국어 교과서 구성과 국어 시간 배당을 비교한다. 그리고 국어과의 목표와 영역 구성,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작품의 선정 기준을 알아본다.

또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학습지도법의 검토이다. 본 연구의 대상 단원은 일본의 첫째 단원인 「やまなし」와 한국의 첫째 단원인 「마음의 곁을 따라」이다. 「やまなし」는 한 단원의 수업이 9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9시간 분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한다. 「마음의 곁을 따라」는 『말하기·듣기·

1) 일본에서는 초등학교를 小学校라고 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초등학교로 표기한다.

2)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이다.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초등학교 7종의 검정교과서 중, 본 교재는 일본 전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이다.

3)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 교과서이다.

쓰기』 9시간과 『읽기』 9시간으로 구분하여 모두 18시간 분이다.

학습 지도법에 나타난 학습 목표의 구성과 내용을 알아보고 문학 교육의 성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또 일본의 문학 작품인 「やまなし」의 학습 지도법을 한국의 수업 현장에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수업 반응들이 있는가를 통해 일본의 학습 지도법의 특징을 알고 한국과 비교 분석한다.

II. 교육과정

1. 국어 교과서 구성

일본 국어 교과서의 크기는 A5신판으로 한 권에는 132쪽 중, 대단원 1은 총 14쪽 분량이다. 작품 내용이 13쪽의 분량을 차지하고 1쪽만 이 단원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물음과 공부할 내용을 간략히 적고 있다. 일본은 14쪽을 45분 단위의 수업 시수(時數)가 9시간이다.

한국의 국어 교과서의 크기는 46배판으로 『말하기·듣기·쓰기』 한 권은 총 146쪽이다. 1단원 '마음의 물결'은 32쪽 분량으로 되어 있고 도입(2쪽), 소단원 1(10"), 소단원 2(10"), 되돌아보기(2"), 더 나아가기(6"), 쉼터(2")로 되어 있다. 『읽기』는 같은 크기로 총 222쪽 한 권에 「마음의 물결」은 42쪽 분량으로 도입(2"), 소단원 1(6"), 소단원 2(14"), 되돌아보기(6"), 더 나아가기(12"), 쉼터(2")로 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 두 권에서 대단원 「마음의 물결」은 74쪽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의 많은 분량 안에는 작품을 듣거나 읽고 난 후, 물음에 답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을 수 있다. 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알게 된 점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공책처럼

활용되는 부분도 있다. 한국은 74쪽을 40분 단위의 수업 시수로 18 시간이다.

교과서 쪽수 분량으로 볼 때, 일본은 단위 수업 시간당 약 1.6쪽을 수업하고 있고, 한국은 약 3.9쪽을 수업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한국의 문학 수업의 학습량은 일본의 2배 이상을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국어 시간 배당

일본의 학습 시간의 경우, 6학년은 연간 총 수업 시수(時數) 945⁴⁾ 시간 중 국어 수업은 175시간으로 전체 약 18.51%를 차지하고 있다. 수업 시수의 1단위 시간은 45분이다.

한국의 수업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는 6학년의 경우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088⁵⁾ 시간 중 국어 수업이 차지하는 시간은 204시간으로 전체 18.75%를 차지하고 있다. 수업 단위당 한 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는 40분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양국의 국어 수업이 차지하는 시간 배당은 약 19%로 거의 비슷하다. 한국은 일본보다 한 시간의 단위 수업 시간이 5분 짧은 반면, 연간 수업 시수는 5시간 많다.⁶⁾ 일본은 한국보다 한 시간의 수업 시간이 5분 더 긴 반면, 연간 수업 시수는 한국보다 5시간 적다. 단위 수업 시간 배당에서 5분이 짧다는 것은 수업 행동의 움직임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5분이 더 길다는

4) 文部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国語編』, 東洋館出版社, 1999.

5)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109쪽

6) 일본은 수업 시수(時數)의 1단위 시간은 45分이고, 한국은 40分이다. 일본은 총 총 7875분으로 약 131시간이고, 한국은 총 8160분으로 136시간이다.

것은 움직임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음의 결을 따라」는 단위 수업 시간이 40분으로 18시간인데, 「やまなし」를 한국식으로 40분 단위로 수업시간을 환산하면 10시간 분에 해당된다.

3. 국어과의 목표와 영역

(1)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과 목표와 영역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⁷⁾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고, 서로 전달하는 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 및 언어 감각을 기르고, 국어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목표는,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서로 전달하는 힘을 높이는 것」과 「사고력과 상상력 및 언어감각을 기르는」 것과 「국어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것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각 학년의 목표이다. 일본은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및 [言語事項]의 3領域 1事項이다.⁸⁾ 일본은 세 가지 영역에 따라서, 제 1학년 및 제 2학년·제 3학년 및 제 4학년·제 5학년 및 제 6학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각 학년의 목표는 아동의 발달 단계와 중학교와의 관련을 배려하면서 학교나 아동의 실태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7)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1995. 7~15쪽.

8)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1995. 5쪽.

이다. 또, 국어과의 지도내용이 계통적·단계적으로 상위 학년에 연관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나선적·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학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제 5학년 및 제 6학년의 학습목표이다.

말하기 · 듣기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생각한 일이나 전하고 싶은 일 등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계획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른다.
쓰기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생각한 일 등을 절차를 세워 서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른다.
읽기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나 요지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독서를 통하여 생각을 폭넓게 하도록 하는 태도를 기른다.

학년의 목표에서 각 영역의 목표는 각각 독자의 목표로서 제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학습목표의 전단(前段)에는 각 영역의 지도 목표가 있고, 후단(後段)에는 태도에 관한 지도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문학 작품 수업과 관련이 가장 깊은 「읽기」 목표에 따른 지도 내용⁹⁾

9)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1995. 110~115쪽.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해 지도한다.

가. 자신의 생각을 폭넓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자료를 선정하여 읽는 것.

나. 목적이나 의도 등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요지를 받아들이는 것.

다. 등장 인물의 심정이나 장면에 관해서 묘사 등, 뛰어난 서술을 음미하면서 읽는 것.

라. 쓰여져 있는 내용에 관해 事象과 감상, 의견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면서 읽는 것.

마.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효과적인 읽기 법을 궁리하는 것.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은 ‘독서발표회를 하는 것,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감이나 사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읽는 것 등’이다. 독서발표회를 갖는다는 것은 독서에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작품과 작가와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언어사항]을 두어 아동 주체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언어 활동을 하게 한다. [언어사항]의 내용은 (1)과 (2)로 이루어져 있다. (1)은 언어에 관한 지도사항이고, (2)는 습자(習字)에 관한 지도사항이다.¹⁰⁾

제 5학년 및 제 6학년의 「읽기」의 내용은,

- 독서적인 읽기 - 자신을 생각을 폭넓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자료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10)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1995. 20쪽.

- 서술내용에 근거한 읽기 -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요지를 독해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 想像적인 읽기 - 등장 인물의 심리나 장면의 묘사 등을 독해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 事象과 感想, 의견에 관계하는 읽기 - 事象과 感想,, 의견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읽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 소리를 내어서 읽기 -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중학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의 중심이나 장면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도록 읽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언어 활동은 주로 문학적인 문장에 관한 활동과 설명적인 문장에 관한 활동이다. 이 외에도 학교나 아동의 실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 활동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독서에는 즐기기 위한 독서, 조사하기 위한 독서,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독서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목적에 따라서 책을 읽을 경우, 지금까지 몸에 익힌 능력을 살려서 필자의 의도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문장의 종류에 따른 읽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학년의 발달 단계의 특징이다. 이 특징을 살려서, 작자와 필자의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나 진술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습의 중심이 된다. 읽기의 지도에서는, 각각의 문장이 갖는 표현이나 문체에 나타난 의도나 궁리, 논리 등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독해 법이 가능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국어과 목표와 영역

한국의 국어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¹¹⁾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한국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¹²⁾ 동안 적용하는 국어과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국어과의 목표는 학교 급별 교과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목표 제시를 추구한 이유로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과 국어 사용 능력의 수준을 1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국어 교육학계의 논의 결과를 수용한

11)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Ⅲ)』, 1998. 15~24쪽.

12) 제 7차 교육과정이 설정한 국민 공통 기본 기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이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 학습은 국민 공통 기본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결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급별 목표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초·중·고 국어 교육의 성과를 총괄할 수 있는 국어과의 교육 목표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³⁾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 즉,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10년 동안 학습한 결과로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최종 성취 수준을 국어과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학교 급에 관계없이 국어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목표는 동일하되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 자료(텍스트)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성취수준에 따라 국어 사용 양상이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학교 급별 성취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국어과의 목표는 ‘전문’과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에 관한 학습의 결과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국어과의 지향점이 인지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향상,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태도, 가치, 동기, 습관 등을 균형 있게 학습하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작

13)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Ⅲ)』, 1998, 10쪽.

품의 해석과 비평 활동을 강조하여 문학적 목적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⁴⁾ 이는 그 동안의 문학 학습이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 능력 향상보다 문학에 대한, 또는 문학과 관련된 지식 전달이 주된 학습 활동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한 주된 목적이 문학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있다고 보고 국어과의 성격 규정에 반영하였고, 국어과의 교육 목표에서도 ‘문학’ 영역 관련 목적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관한 태도’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적 국어 사용 능력의 향상은 문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고 하여 질적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인 문학 지식은 문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어야 하고, 그 지식은 학습자가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국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의 문학 활동을 통해 그러한 지식이 습득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학습자가 개별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학습 활동을 강조한 이유이다.

6학년의 문학 영역의 학습 내용으로 문학의 갈래와 작품에서 사건의 전개와 배경, 표현법, 반영된 문학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Ⅲ)』, 1998. 14쪽.

(3)국어과 목표와 영역의 비교

일본의 국어과 목표는 언어 교육으로서의 입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어의 기본적이고 중핵이 되는 네 가지 교육 내용을 간결·명료한 표현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각 학년의 목표를 영역별로 나누면서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국어과의 계통적·단계적인 것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학습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영역별 지도사항은 대단히 세밀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목표는 제 5학년과 제 6학년으로 두 학년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3영역으로 나누고 영역의 목표에서는 지도 목표와 함께 태도 부분까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문학 영역은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작품의 내용과 함께 그 작가의 의도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품의 작가와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의 국어과 목표는 국민 공통 기본 기간(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동안의 내용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성취 수준에 따라 국어 사용 양상이 달라진다.

국어과 목표의 내용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학습할 내용이 많다. 또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문학 작품 그 자체의 내용에 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문학 작품과 가장 긴밀한 작가와의 만남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어과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고, 특히 문학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학 학습은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어 문학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는 주어진 제재 작품의 이해와 감동을 받고, 이것을 인성변화와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배당, 작품 수, 작품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문학 영역의 설정 의도대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국어 교과서의 작품

(1) 국어 교과서의 내용 선정

일본의 국어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재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¹⁵⁾

○ 교재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교재는 말하기·듣기 능력, 쓰기 능력 및 읽기의 능력을 치우치지 않고, 독서에 친밀한 태도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적절한 화제나 제재를 정선하여 조화적으로 다룰 것. 또 지도 내용의 취급에 개시된 언어활동이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할 것으로 되어 있다.

○ 교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배려하여 게재된다.

가.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나. 서로에게 전달하는 능력, 사고력과 상상력을 및 언어 감각을 기

15) 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国語編』, 東洋館出版社, 2001. 140~144쪽.

- 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다. 공정하면서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이나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라. 과학적, 논리적으로 보는 법과 사고하는 법의 태도를 기르고,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마. 생활을 밝고, 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의지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바.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사.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아.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자.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차. 세계의 풍토나 문화 등에 이해를 갖고, 국제 협조의 정신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 「읽기」 교재에 관해서는, 설명적인 문장과 문학적인 문장 등의 문장형태를 조화적으로 다룬 것.

이상과 같이 일본의 국어과 교재 선정의 유의 사항으로는 세 영역의 고른 능력 배양으로 독서 태도 육성과 아동 발달 단계에 근거한 화제나 제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교재의 관점은 국어에 대한 태도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본인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 요소를 골로루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읽기」 교재 영역에서는 아동의 실태에 따른 설명적인 문장과 문

학적인 문장 등의 문장 형태를 조화적으로 다루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국어 교과서 내용 선정은¹⁶⁾ 『말하기·듣기·쓰기』의 경우,

- 학년별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한 기본 교육 내용의 성취 수준과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심화·보충 학습과도 유기적으로 관련되게 선정한다.
- 언어 자료의 길이, 내용 구조, 어휘, 주제 등이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쓰기 학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한다.
-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 지식 영역의 교육 목표 달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되, 읽기 영역과의 통합적 언어사용 기능이 신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단원의 학습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학습 제재를 선정하고, 바람직한 가치 요소가 다양하게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경험 세계를 반영하여 창조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되, 읽기, 국어 지식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또 『읽기』의 경우는

- 학년별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한 기본 교육 내용의 성취 수준과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심화·보충 학습과도 유기적으로 관련되게 선정한다.
- 언어 자료의 길이, 내용 구조, 어휘, 주제 등이 학습자의 읽기 학

16)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9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도서 편찬 추진계획』 1999. 5. 36~42쪽.

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한다.

- 읽기, 문학 영역의 교육 목표 달성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되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영역과의 통합적 언어사용 기능이 신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다양한 종류의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단원의 학습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학습 활동 제재를 선정하고, 바람직한 가치 요소가 다양하게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경험 세계를 반영하여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되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 지식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문학 작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¹⁷⁾

이상과 같이 한국의 교재 선정 기준은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 성취 수준과 범위를 중심으로 심화·보충 학습과의 유기적으로 관련되게 선정한다. 자료의 길이, 내용 구조, 어휘, 주제 등이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아동의 경험에 맞추어 각 영역의 목표 달성에 알맞은 내용과 바람직한 가치 요소가 각 영역간의 연관성과 함께 통합적 언어 사용 기능이 신장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되 문학 작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은 목표 지향적이고 인지적 영역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의 가치 요소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2) 한 단원에 수록된 작품

일본은 한 단원에 『やまなし』의 한 작품으로 9시간의 수업이 이

17)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9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도서 편찬 추진계획』 1999.5.

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 작품만을 제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아동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발표할 기회가 많다. 그리고 제재 작품에 붙여진 제목부터 전 작품의 낭독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작품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한 다양한 삶의 경험은 체험할 수 없다.

한국은 한 대단원에 많은 작품수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 소설, 수필 등이 한 단원에 동시에 수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단원의 문학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하여 인간 삶의 여러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작품에 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한국의 국어 교과서 첫째 마당에 실린 작품은 『말하기·듣기·쓰기』에 10 작품이 실려 있고 『읽기』에 10 작품이 실려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20 작품은 숙독하거나 깊이 음미할 제재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요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대단원 「마음의 곁을 따라」 한 단원에 수록된 20개의 작품 명이다. 교과서 수록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수록하였으며, 수록 저작물은 교과서명과 쪽수, 제재명(저작명), 저작자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¹⁸⁾

18)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60쪽.

수록 교과서		제재명(저작물명)	저작
말 하 기 · 첫 들 기 · 당 쓰 기	1 소단원(4쪽)	그늘	하청호
	1 소단원(6~7쪽)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아	김은영
	1 소단원(10쪽)	별	공재동
	1 소단원(12~13쪽)	넌 바보다	신형건
	2 소단원(16쪽)	손 대지 않은 망고나무 원제: 손 대지 않은 암라나무	신현득
	2 소단원(18~21쪽)	임금의 명령 원제:요임금의 길가는 명령	서정오
	되돌아보기(26쪽)	실 끝을 따라가면	권영상
	더 나아가기(28쪽)	백구	김민기
	더 나아가기(30~31쪽)	허전한 아픈 자리에	박경용
	쉽터(34~35쪽)	자식 사랑, 아버지 사랑	최내옥
읽 기 · 첫 들 기 · 당	대단원 도입(4쪽)	소나무	정두리
	1 소단원(6~7쪽)	길을 가다	이준관
	1 소단원(8~9쪽)	도깨비	윤석중
	1 소단원(10~11쪽)	숲	강은교
	2 소단원(12~14쪽)	소희의 일기장 원제: 너도 하늘 말나리아	이금이
	2 소단원(17~24쪽)	자전거를 타는 물고기	안선모
	되돌아보기(26~27쪽)	지구의 일	김용택
	되돌아보기(27~30쪽)	엄마 신발 신고 뛰기	정란희
	더 나아가기(32~42쪽)	청국장	최영재
	쉽터(45쪽)	친구야, 눈빛만 봐도	

(3)작품과 작가

일본은 교과서 목차에서부터 작가 명이 작품명과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고, 단원에 들어가서도 작품명과 함께 작가 명이 명시되어 있다. 글자 크기는 작품 명보다 작지만, 작품 명과 함께 표기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작품의 작자에 관해서는 작가의 사진, 약력, 작가의 다른 작품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일본 초등학교의 검인정 국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작품명과 작가명만 실렸었는데, 2002년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작품과 함께 작자와 그림 그린 사람의 이름까지 나란히 게재되고 있다. 또 사진이 실렸을 경우에는 사진 작가의 이름도 게재하고 있었다.

한국의 「마음의 곁을 따라」에는 20작품이 실려 있는데, 교과서 어디에도 작가 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활용하는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의 실제'에서 참고 자료로 6학년 1학기 첫째 마당에 나오는 「달걀은 달걀로 갇으렴」의 작가 <박완서>의 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고 있고, 『소녀와 늑대』의 스웨덴의 소설가 <은손>을 두산세계 대백과 EnCyber의 것을 인용하여 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고 있다.¹⁹⁾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의 부록에 '교과서 수록 저작물과 목록'란에 국어 교과서 두 권에 실려 있는 저작물명, 작가작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읽기』셋터²⁰⁾에 실린 『친구야, 눈빛만 봐도』는 공란²¹⁾으로 되어 있다. 6학년 2학기에는 『읽기』둘째 마당에 나오는 「백범 일지」의 작가 김구²²⁾의 약력이 나와 있다. 1학기

19)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124쪽과 333쪽.

20) 이 '셋터'란에는 그림 자료 또는 문자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를 제시한 목적은 학습자가 교과서에 제시한 읽기 자료를 읽거나 그림 자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 말과 글에 담긴 국어 문화의 실체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정규 시간에 다루지 않는다. 정답을 미리 전제하는 대신 학습자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안내해 주는 데 중점을 두어 활용하도록 안내해 준다.

21) 작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 두고 임의 게재를 한 다음, 발행이 완료된 이후 저작자를 찾아 밝히기도 한다.

2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167쪽.

는 전체 33 작품 중 두 작품에만 작가들에 대한 자료 자료가 있고, 2학기에는 52작품 중 한 작품의 한 작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결을 따라」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의 지도 유의점에서는 ‘6학년 정도의 독서 수준에서는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어보거나 주제가 비슷한 다른 작품을 읽어보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²³⁾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작가 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교과서만으로는 아동 스스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가 있더라도 아동 스스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으려는 의지와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권의 교과서 뒤에 있는 표지에는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 편집, 삽화, 글씨, 사진 등의 인물과 근무처가 소개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 뒷면의 표지에는 책임 있는 집필을 위하여 『집필자 실명제』 도입²⁴⁾으로 집필자를 표기하고 있는데, 아동들에게는 이들보다 작품의 작가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작가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작품의 작가 이름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지도서의 뒷면에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어릴 때부터, 작품도 한 사람의 지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23)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2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24) 교육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9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 1999. 5.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작품명과 함께 반드시 작가 명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국어과의 문학 수업을 통해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의 작품을 마음대로 인용하고, 불법복사물이 난무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 교과서에서는 작품의 원제가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임의로 바꾸어 수록하는 경우 학습자인 아동들은 작품의 원제를 알 수 없다. 가능한 작품의 원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습자인 아동들이 알 수 있도록 교과서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III. 학습지도의 실제

1. 학습 목표

(1) 「やまなし」²⁵⁾의 학습 목표²⁶⁾

대단원 목표	情景를 풍부하게 想像시키기 위한 朗讀을 重視하고, 表現의 差異・獨特함을 확실히 파악시키기 위해 視寫나 씨 넣기를 도입하고, 文章에 의거한 場面이나 情景를 이미지하며 풍부히 읽는다.
1次時 목표	全文을 읽고, 의문이 나는 것이나 감동한 것을 중심으로 제 1차 感想文을 정리할 수 있다. 또, 그것들의 교류에 의거하여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5) 여기에서는 9시간분의 수업 시간을 다루고 있지만, 『「雨ニモマケズ」「やまなし」の授業』의 121쪽에서는 학습지도안 7시간 분의 약안이 있고, 2002년부터 실시되는 6年上 국어 교과서에서는 4 단원명이 「作品と出会う、作者と出会う」로 16시간 분의 수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6)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國語 學習指導書 6年下 希望』,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1992. 32~43쪽.

●第 1時 : 全文을 읽고, 의문 있는 것이나 感動한 것을 中心으로 感想을 정리할 수 있다.	
●第 2時 : 感想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하고, 熟讀을 위한 學習 計劃을 세울 수 있다	
2次時 목표	색채어, 비유, 의성어, 의태어의 아로 새겨진 표현으로부터 5월과 12월의 情景를 이미지 할 수 있다. 또 明暗動靜을 나타내는 말이 문장 중의 여기 저기에 잘 흩어져 있어,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세계가 대조적인 세계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第 1時 : 물총새의 출현 前까지 5월의 장면을 읽고, 5월이 아름답고 밝은 계절이면서도 불길함을 예감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第 2時 : 물총새 출현후의 5월의 장면을 읽고, 5월은 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아름답고 밝은 계절이지만, 물고기가 물총새에게 습격당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세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第 3時 : 돌배의 낙하 前까지의 12월의 장면을 읽고, 차갑고 투명하며 조용한 물 속의 情景와 가족의 따뜻함에 관해서, 5월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第 4時 : 돌배의 낙하 후의 12월의 장면을 읽고, 기대를 갖고 즐거운 듯이 돌배를 쫓는 게 父子의 모습 등, 前時의 情景를 아울러, 12월은 차갑고 조용한 물 속이면서, 희망이 있는 따뜻한 세계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第 5時 : 5월과 12월을 대비하고, 두 가지의 세계가 대조적으로 그려진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3次時 목표	‘돌배’라고 하는 제목과 연관지어, 조용하고 평온한 세계를 바라 는 作者의 사고 방식에 언급하면서 주제에 관해서도 정리하고, 듣는 쪽에서도 잘 알 수 있도록, 빠르기, 強弱, 간격(사이) 띄우기, 그리고 색채, 비유,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알게 하 고 낭독할 수 있다.
	●第 1時 : 제목이 ‘돌배’라고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해서 생각하고, 작품의 주제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쓸 수 있다.
	●第 2時 : 5월과 12월의 情景이 듣는 쪽에도 잘 알 수 있도록, 빠르기, 강약, 간격취급, 그리고, 색채, 비유,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나 타내는 말에 주의하여 낭독할 수 있다.

(2) 「마음의 길을 따라」의 학습 목표²⁷⁾

구 분	말하기 · 듣기 · 쓰기	읽 기
대단원 학습 목표	○시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주 고 받을 수 있다	○시나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읽 을 수 있다

27)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
식회사. 2002. 55~56쪽.

1.시와 함께	○1차시-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 받으면 좋은 점을 안다. [그늘],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아] ○2차시-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쓸 수 있다. [별] ○3차시-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다. [넌 바보다]	○1차시-시를 창의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소나무], [길을 가다] ○2차시-시를 읽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도깨비] ○3차시-시를 읽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다. [숲]
2.이야기 속으로	○4차시-이야기를 듣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다. [손 대지 않은 망고나무] ○5차시-이야기를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임금의 명령] ○6차시-이야기를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임금의 명령]	○4차시-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소희의 일기장] ○5차시-이야기를 읽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물고기] ○6차시-이야기를 읽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물고기]

한 걸음 더	07차시-시를 듣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주고받을 수 있다. [실끝을 따라가면] 08차시-노래를 듣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주고받을 수 있다. [백구]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주고 받을 수 있다. [허전한 아픈 자리에] 09차시-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07차시-시나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읽을 수 있다. [지구의 일], [엄마 신발 신고 뛰기] 08차시-이야기를 읽고, 창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청국장] 09차시-이야기를 읽고, 창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청국장]
--------------	--	--

(3) 학습 목표의 비교

먼저, 학습목표 구성면을 살펴보면, 「야마나시」는 대단원 목표 아래에 1~3차시 목표가 있다. 1차시 학습목표에는 第1時~第2時 학습목표가 있고, 2차시 학습목표에는 第1時~第5時 학습목표가 있다. 그리고 3차시 학습목표에는 第1時~第2時로 구성되어 총 9시간의 학습시간으로 목표가 구성되어 있다.

「마음의 걸을 따라」는 대단원 목표에서 두 권의 교과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로 크게 나누고, 소단원명 ‘1.시와 함께’ ‘2.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로 나누어 학습목표가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에서 각각 ‘1.시와 함께’ 3차시분, ‘2.이야기 속으로’ 3차시분, ‘한 걸음 더’ 3차시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18시간의 학습시간으로 목표가 구성되어 있다.

「やまなし」의 第()時와 「마음의 곁을 따라」의 ()次時は 표현은 다르지만, 단위 시간당 수업을 말하고 있다. 한 단원인 「やまなし」는 9시간분의 학습목표이고, 「마음의 곁을 따라」는 18시간분의 학습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학습목표 내용면을 살펴보면, 「やまなし」는 9시간동안 한 작품에 관한 제재로 되어 있다. 대단원 목표에서는 낭독을 중시하고 장면이나 정경을 이미지 하여 읽기이다.

- 1次時 - 全文 읽고 감상 쓰기
- 2次時 - 색채어, 비유, 의성어, 의태어 등의 표현으로부터 5월과 12월의 정경을 이미지 하여 대조적인 세계 알기
- 3次時 - 제목과 주제에 관해 정리하고 낭독하기

로 학습목표가 진술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第()時に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やまなし」는 한 작품에 대한 것이므로 제목, 주제, 내용의 장면, 표현, 읽기, 쓰기, 서로 대화하기 등 아주 자세히 세분화 되어 진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やまなし」의 학습 목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재인 한 작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 「마음의 곁을 따라」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반면, 수업의 학습 활동은 같거나 비슷하여 수업 진행이 단조롭고 작품의 내용은 학습 요소에 필요한 것만 짧은 시간에 파악하여야 한다.

「やまなし」의 마지막 수업은 동화를 낭독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やまなし」의 낭독은 이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やまなし」라는 5월과 12월의 대비에 의한 이차원적인 독해에서는 작품이 지닌 말의 나긋나긋함과 미묘하고 섬

세한 비유의 멋진 표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머리 속에서 의식적으로 억지로 이해하는 것보다 직접 공명해 보고 말의 리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²⁸⁾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화의 낭독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고 한 시간의 수업으로 배당하고 있다.

「마음의 결을 따라」의 대단원 목표는 『말하기·듣기·쓰기』에서는 시·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생각이나 느낌 주고 받기이다. 『읽기』는 시·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읽기이다. 소단원에서 『말하기·듣기·쓰기』는 주어진 작품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 쓰고 서로 느낌 나누기이다. 『읽기』는 주어진 제재인 작품을 창의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주고 받기이다.

「마음의 결을 따라」는 『말하기·듣기·쓰기』의 경우 ‘1.시와 함께’는 시 4 작품, ‘2.이야기 속으로’는 소설 2 작품, ‘한 걸음 더’에서는 시 3 작품, ‘쉼터’에서 소설 1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 『읽기』의 경우 ‘1.시와 함께’에서는 시 4 작품, ‘2.이야기 속으로’에서는 소설 2 작품, ‘한 걸음 더’에서는 시 1 작품, 소설 2 작품, ‘쉼터’에서 현대시조 1 작품이 실려 있다. 위의 차시 내용에 있는 [] 안에는 그 차시에 학습할 제재 작품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제재의 작품이 다르므로 학습 목표 진술이 같은 표현이 많고 수업 행동도 동일한 것임을 수업 목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에서는 수준별²⁹⁾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28) 光村図書出版株式会社, 『国語 学習指導書 6年下 希望』, 光村図書出版株式会社, 1992. 24쪽.

「やまなし」の朗読は、この作品の理解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だろう。なぜなら、「やまなし」という作品は単なる「五月」と「十二月」との対比による二元的な読解では、作品のもつ言葉のしなやかさ、微妙で繊細な比喩やあやをと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ある。実際に声に出して表現し、自らその言葉の響きに共鳴してみたほうがよい。

29) ‘한 걸음 더’에서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보충학습은

대단원 「마음의 곁을 따라」의 수업 진행은 『말하기·듣기·쓰기』, 『읽기』 순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편찬하되, 단위 학습 내용에 따라서는 2시간 연속 수업, 교과서별로 대단원 연속 수업 등 교사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편찬하였다. 특히, 두 교과서의 대단원명을 동일하게 제시하여 활용의 편의도 도모하였다.³⁰⁾

2. 「やまなし」의 수업³¹⁾

국어 시간의 문학 작품을 작품을 다루는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통해서 양국의 학습 지도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습 지도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동들은 일본어 교과서에 있는 「やまなし」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학습 반응을 보여줄까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었다. 필자는 올해 6학년을 담임하고 하고 있다.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6학년 2반의 37명(남 19, 여 18)을 대상으로 3월 2주부터 3주에 걸쳐 일본 학습지도안에 따라 실제 수업을 적용해 보았다. 단위 수업 시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아침 자습 시간과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9시간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やまなし」의 작품을 번역하여 유인물³²⁾로 나누어 주고 일본 검정교과서의 학습지도안³³⁾을 근거하여 수업을 진행했

본 교육내용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학습과정을 제시하고, 심화 학습은 필수 학습 요소를 깊이 있고 넓게 학습하여 의미있는 학습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30)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48쪽.

31) 수업의 실제 흐름은 '부록 2'에 있는 일본 小學校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지도안이다.

32) 부록 1의 뒤에 있는 「やまなし」의 번역 작품은 지난 학기의 문학 세미나 발표 시간 때 사용했던 것이다.

33) 星野 巖(1992), 『国語 学習指導書 6年下 希望』, 光村図書出版株式会社.

다.

(1)1次時の 第 1時 ~第 2時

첫째 시간, 먼저 제목인 ‘돌배’의 사진을 보여 주고 돌배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갖게 했다. 또 제목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고, 전문을 통독시켰다. 그리고 작품을 읽고 감동 받은 것을 중심으로 서로 발표하고 감상한 것을 쓰도록 했다.

- 크랑본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웃는 것이 재미있었다.
- 돌배의 맛이 어떤 것인지 먹어보고 싶다.
-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와 달라서 새롭고 비유하는 표현이 많아서 재미있다.
-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쉽고 재미있다.
- 형제 개의 다정한 모습이 좋다.
- 돌배가 술이 되면 물에 흘러갈텐데 어떻게 먹을지 궁금하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감상의 글을 대하고 동화가 갖는 풍부한 상상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일본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들이 외국 작품을 어려워하여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기우에 불과했다. 첫 시간에 아동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やまなし」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은 정경을 상상하면서 전문을 소리내어 읽힌 후, 가장 인상 깊은 부분에 관해 함께 이야기했다.

- 개 형제의 거품내기 장면이 재미있다.

- 여러 가지 비유법과 옆으로 걷는 게들이 돌배를 따라가는 재미 있다.
- 무서워 떨고 있는 게 형제에게 아빠 게가 위로해 주는 장면이다.
- 게 형제의 재미있는 대화 장면이다.
- 거품이 흘러가는 장면이다.
- 물총새가 물고기를 잡아 가는 장면이 무섭다.
- 반짝거리는 빛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등의 각자가 상상한 것을 서로 나누었다. 어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까지 상상하는 아동들이 무궁무진한 상상력 속에 함께 있었던 필자가 감동 받았던 수업이었다. 두 번째 수업을 하면서 시간에 늘 쫓기는 교사의 모습에서 벗어나 아동들과 함께 동화 속에 폭파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 2次時の 第 1時~第 2時

물총새의 출현 전과 후의 5월 장면을 낭독하고, 5월의 물 속 세계를 함께 생각했다. 물총새의 출현 전, 5월의 모습에서 받은 느낌을 예로 들면,

- 가장 많은 아동들이 크랑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웃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다.
- 거품을 내뿜는 형제 게의 다정한 모습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인다.
- 크랑본을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무서운 일을 예고해 주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서로 발표했다. 크랑본의 정체에 대해 아동들은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었고, 게 형제의 다정한 모습이 인상 깊게 와 닿

는 것을 알았다.

물총새가 등장한 이후, 5월의 모습에서 받은 느낌을 예로 들면,

- 가장 많은 아동이 물총새에게 물고기가 잡혀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잔인하였다.

- 물총새의 등장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형제 계를 위로하는 아빠를 통해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

- 계의 자라 가는 모습이 우리가 자라 가는 모습과 같다.

- 나도 계 형제처럼 겁이 많은데, 좀 더 대범해져야 하겠다.

- 물총새는 나쁘지만, 물총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 물총새의 등장으로 소란스럽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야기가 더 재미있다.

- 여기 나오는 물총새가 등장하므로 물 속에 분위기 완전히 변하듯이 아동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 주시는 어머니의 화난 모습을 떠올려 어머니와 같이 무섭다.

- 자작나무 꽃잎이 흘러 온 것은 무서움 끝에 밀려오는 평화로움과 희망, 침착성이 있어서 인상에 남는다.

라고 말하는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에게는 물총새의 무서움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아빠 계의 위로에 관해서 많은 아동들이 발표했다. 물총새의 무서운 모습에서 어머니의 화난 모습을 떠올리는 아동이 세 명 있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크랑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물고기일 것이다.
- 계들의 친구일 것이다.
- 거품은 떠 다니고 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품이다.
- 끈 물려 올 더위이다.
- 말썽꾸러기 미꾸라지이다.
- 상상의 사람일 것이다.

등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 각각이었지만, 계의 친구로 대답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고기로 생각하는 아동들도 많았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는 질문하고 아동들은 생각한 것을 상상하고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과다한 학습량으로 늘 바빴던 평소의 국어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필자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하였고, 친구들의 발표를 주의하여 듣기도 했다.

(3) 2次時の 第 3時~第 5時

둘배의 낙하 전과 후의 장면을 나누어 읽고, 12월의 모습을 함께 생각했다. 둘배의 낙하 전에는,

- 가장 많은 아동이 5월의 어린 계가 자라서 거품 놀이 하는 모습이 즐겁다.
- 푸르스름한 불꽃의 반짝거림이 아름답다.
- 금운모의 조각에서 차가움을 느꼈다.
- 계 형제가 거품을 내 뿜는 모습에서 많이 자랐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한 아동도 있었다.

돌배가 나타남으로서,

- 향기가 넘치는 계곡에서 돌배를 쫓아가는 계들의 모습이 재미있다.
 - 술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풍성하고 따뜻한 계곡이다.
 - 계 부자들이 돌배가 술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안 된다고 조르지 말고 기다려야 하겠다.
 - 무서운 동물도 없고, 돌배가 나타나 향기가 넘치니까 계 가족은 행복하다.
 - 조용하고 평화롭다.
 - 돌배의 향긋한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 계들이 돌배를 보고 입맛을 다시는 것이 재미있다.
 - 돌배를 꼭 한 번 먹어 보고 싶다.
 - 돌배에 대해 알게 되어서 수업이 재미있다.
- 라고 말하는 아동이 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사도가 무엇일까 상상해서 서로 발표했다.

- 가장 많은 아동이 놀이 공원이나 놀이 공원 같이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다.
- 천국, 용궁, 제주도 같은 휴양지 같다.
- 무서움이 없는 곳이다.
- 계 친구들이 많은 곳이다.
- 계들의 먹이가 많이 있는 곳이다.
- 계 가족만 놀 수 있는 곳이다.
- 학교이다 - 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것 같다, 우리 동생도 유치원 갈 나이인데 계속 유치원에 간다고 하니까.

○ 모래사장이다 - 물 속에서만 지내던 게들이 모래 사장 쪽을
구경하고 싶었을 것이다.

○ 크랑본의 집, 크랑본이 쉬는 곳이다.

○ 돌섬이다.

등으로 대답했다.

第 5時에는 5월과 12월의 장면을 비교하면서 전문을 다시 읽고,
두 장면을 표로 정리하면서 5월과 12월의 다른 점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아동들이 상상한 것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평안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업하는데 아
동들은 지겹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다. 다행히 필자의 생각과는 달
리 모든 아동은 ‘돌배’가 재미있다고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발표에
임하여 활기 있는 수업이 계속 되었다.

(4) 3次時の 第 1時~第 2時

왜 「やまなし」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라는 물음에는,

○ 마지막 부분에 돌배가 나와서 부자(父子) 계를 따뜻하고 행복
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돌배 때문에 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며 꿈을 주기 위한 것
이다.

○ 물총새의 두려움을 달래주고 웃음을 되찾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하여 이야기를 좋게 끝맺게 하기 위함이다.

○ 돌배가 들어와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평화로움을 되찾기 때문이다.

○ 돌배가 밝은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 물총새의 두려움을 돌배로 달래 주기 때문이다.

○ 아빠 게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돌배가 맛있기 때문이다.

○ 돌배의 향기가 좋기 때문이다.

등의 대답도 나왔다.

「やまなし」의 주제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

○ 아이들에게 기다림, 설레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말고 잘 극복하자.

○ 형제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과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돌배가 술이 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 돌배를 통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 생명의 소중함과 힘든 일 뒤에는 행복한 일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 이 세상에는 즐겁고 신나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불길한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작품이다.

○ 아름다운 가족 사랑을 가르쳐 주고 가족과 행복하게 잘 지내자.

○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자

○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 책을 읽고 상상을 많이 하자.

등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5) 「やまなし」의 감상문과 감상화

마지막 시간에는, 이 수업을 총마무리 하기 위해 「やまなし」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감상화와 감상문을 쓰기로 했다. 먼저, 野口芳宏씨의 「やまなし」 수업³⁴⁾을 읽고 이 작품을 풍부히 이미지화 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필자 반 아동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적용해 보았다. 필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처음 이 작품을 읽고 깊은 계곡과 실제보다 훨씬 큰 계로 상상했던 것을 이번 수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안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사의 발문은 「やまなし」에 나오는 계곡의 깊이는 얼마일까? 계의 크기는? 물총새의 크기는? 등이었다. 교사의 이런 발문에 아동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자못 궁금했다. 작품을 읽고 느낀 것을 감상화와 감상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돌배의 크기부터 생각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통해 돌배의 크기와 내용을 소개했더니, 요즈음 SBS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고 있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³⁵⁾을 통해 야생 곰이 돌배를 따 먹었던 장면을 본 아동들이 10여명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았던 아동들은 실제 돌배의 크기에 접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과일로 먹고 있는 배의 크기를 떠올려 실제 크

34) 野口芳宏 외 1名, 『「雨ニモマケズ」「やまなし」の授業』, 明治図書出版株式会社, 1997.

35) 야생의 자연을 누비는, 혹은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수십 만종의 동물들, 인간과 밀접한 생활을 나누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SBS 프로그램이다.

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돌배의 크기는 직경 2~2.5cm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에 자를 대어서 그 크기를 직감하도록 했더니 모든 아동들이 생각보다 작다고 하면서 놀랐다.

다음으로 계곡의 깊이에 대해 생각했다. 본문에서 계곡의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고 안내했더니, 본문 안에서만 찾느라고 쉽게 찾지 못하다가 동수가 처음에 있는 ‘작은 계곡’을 찾고 앞의 돌배와 연관하여 그 깊이를 작은 것으로 대답하여 생각보다 쉽게 접근해 갔다. 그리고 물총새에 관해 이야기했다. 아동들 중에는 물총새 대해서 책을 읽거나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아동들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중요 등장 인물인 계의 크기에 대해서는 돌배와 계곡을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면서 새끼 손가락 만한 것을 말했더니 ‘그렇게 작아요’ 라고 하며 믿어지지 않는 표정들의 아동들이 다수였다.

여러 작품을 제재로 하여 비슷한 학습 활동에 길들여져 있는 아동들에게는 이런 「やまなし」 수업은 조금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동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비교하느라 마지막 수업의 학습활동은 대단히 활기가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아동들도 적극적이었다. 풍부한 상상력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자신을 느낌을 스스로 어려워하지 않고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수업이었다. 이와 같이 교사의 깊이 있는 발문은 이미지 수업에서 풍부한 작품 이해로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었고, 전 아동이 흥미를 갖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업이었다. 학습지도안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한 수업 내용을 한국의 아동들에게도 적용하므로 감상화와 감상문을 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동들의 감상문은 첫째 시간에, 적은 감상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크랑본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다음으로 계를 사람처럼 의인화한 비유법과 반복되는 말이 재미있다는 내용이었고, 계들의 거품 내기 놀이와 돌배의 맛과 함께 먹어보고 싶다 내용도 있었다. 계들의 대화가 재미있었다는 것과 물총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몇 명의 아동들은 왜 ‘돌배’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와 술이 되는 돌배가 신기하다는 평소 읽던 책과는 다르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데, 「やまなし」의 수업을 마치면서 쓴 감상문에서는,

- 크랑본은 여전히 모르겠다와 나름대로 크랑본은 물고기일 것이다.
- 「돌배」라는 작품을 2주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독해하기 쉬웠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 이런 재미있는 동화는 처음이다.
- 「돌배」와 비슷한 글 더 읽고 싶다.
- 국어 공부가 싫었는데, 국어가 좋아지게 되었다.
- 돌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 책을 더 읽고 싶다.
- 물총새와 돌배에 대해 알았던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 크랑본과 이사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 돌배가 술이 되길 기대하는 계들의 즐거운 모습이었다.
- 아빠 계의 위로와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계들의 대화이다.

라는 다양한 느낌의 글들이 나왔다.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자주 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

은 작품을 기대합니다 등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やまなし」수업을 시작하면서 쓴 감상문과 마치면서 쓴 감상문에서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처음에 몇 가지로 한정되고, 한 곳으로 집중되었던 느낀 점들이 마지막 감상문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수업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과 작품의 관심에 대해 쓴 내용 등도 아동들의 느낌을 감상문으로 만날 수 있었다.

아동들의 감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마리의 개와 돌배의 모습을 그린 아동들이 17명, 물총새의 습격 16명, 개들의 거품 놀이 하는 모습이 3명이었다. 빛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한 아동도 있었다. 그리고 5월에 물총새가 물고기를 잡아 먹는 장면과 12월의 돌배가 있는 모습인 두 장면을 동시에 나타낸 아동이 3명 있었다.

6학년 아동들은 저학년과 달라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 때문인지, 그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감상화는 단조로운 편이었다. 감상화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마지막 시간에 유도한 교사의 발문이 아동들의 상상력을 더 제한시킨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도 했지만, 수업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필자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교사의 다양한 발문의 수업이 아동들에게 풍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6) 「やまなし」수업을 마치고

「やまなし」수업에 참여했던 37명의 아동 중에 36명이 재미있었다고 대답했고, 1명은 지겨웠다고 대답했다. 재미있었던 이유로는 많이 발표할 수 있었던 것, 마음껏 상상하는 것, 내용이 쉽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비유와 반복되는 말이 재미있었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조화가 있어서, 무서움과 기쁨이 잘 나눠져 있어서, 돌배와 물총새에 대해 알게 되어서 등이었다. 지겨웠다고 대답한 아들은 성격은 밝고 원만하지만 학습 부진아로서 내용의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やまなし」수업을 하는 2주 정도는 우리 반 전체가 「やまなし」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던 시간이었다. 「やまなし」수업이 끝나고, 한 주가 지나서도 일기장에는 「やまな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 2003년 3월 28일 금요일 날씨 맑음 이원영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누어 주는 ‘돌배’라는 이야기를 다 공부했다. 작은 계곡에서 아빠 계, 형 계, 동생 계, 크랑본, 물고기, 물총새, 돌배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재미있었다. 물총새가 등장하여 형 계와 동생 계가 무서워하는 장면도 인상 깊었다. 일본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9시간 정도로 한가지 이야기만을 공부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와는 무척 다르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 믿어지지 않는다. 돌배를 배우면서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나도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하겠고 여러 번 읽어야 하겠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돌배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공부하여 즐거웠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무척 많아졌다. 독해력을 늘릴 수 있게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 비유법도 잘 사용하여 재미있었고 돌배를 직접 먹어 보고 싶기도 하고…….

○ 2003년 3월 31일 월요일 날씨 맑음 안외정

이제 돌배를 안 한다. 돌배를 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돌배는 참 재미있었다. 장면만 생각해도 재미있는 돌배, 돌배를 더 하고 싶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내용을 1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하니 지루할 것 같았는데 막상해 보니 참 재미있었다. 점점 할수록 돌배의 재미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선생님 이런 문학 공부를 한 번 더 공부해요.

○ 2003년 4월 2일 수요일 날씨 맑음 홍슬기

어머니께 돌배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도 돌배를 먹어 보았다고 했다. 감도 돌배만큼 작은 것도 있고 복숭아도 돌배만큼 작은 것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는 할머니 댁에 가면 뒷산에 지금도 그 돌배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빨리 외할머니 댁에 가서 돌배를 한 번 먹어 보고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영주’라는 여자 아이는 ‘선생님 돌배처럼 재미있는 작품 또 공부해요’라고 주문하는 말을 듣고 한 작품에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문학 수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가르쳤던 교사도 「やまなし」 작품에 깊이 빠져 들어가 나뭇대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도 필름처럼 생생히 머리에 자주 떠오르는데, 아동들도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도 「やまなし」 수업의 잔잔한 여운으로 아동들의 마음에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やまなし」의 수업을 통해 동화라는 문학 작품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감동 받는 문학 교육이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작품에 관한 사고의 깊이와 폭은 더 깊고 더 넓어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문학 수업의 비교 분석

일본의 문학 수업을 적용해 봄으로써 알게 된 양국의 문학 수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목표의 진술, 학습 활동과 지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의 작품을 다양한 각도와 시각으로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학습 활동으로 한 작품을 여러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독해가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느긋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표가 있고, 책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됨으로써 책에 부담을 갖는 아동도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아동들도 무리 없이 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로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한국의 문학 수업은 한 단원 안에서 다양한 문학 종류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아동들은 작품들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비해 학습 분량이 많으니까 깊이 있는 작품 이해가 어렵고 내용 파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말미암아 작품에 대한 깊은 감동이 없고 작품의 내용을 빨리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려면 문학 학습이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 문학 수업에서는 작품 내용의 이해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작품 감상의 생각하는 시간보다 학습 요소로 주어진 내용을 해결하는 활동 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학 수업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학습 훈련은 할 수 있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깊은 사고를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한·일 문학 교육의 비교를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실재를 통해 일부분이지만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국어 교과서의 쪽수 분량으로 볼 때, 일본은 1시간에 약 1.6쪽을 수업하고 있고 한국은 약 3.9쪽을 수업하고 있다. 한국의 문학 수업 학습량은 일본의 2배 이상을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 시간 배당의 연간 수업 시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5시간 적고 일본의 단위 수업 시간은 45분이고 한국은 40분이다.

둘째, 국어과의 목표와 영역 면에서는, 일본은 국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다. 목표는 제 5학년과 제 6학년의 교육을 하나로 묶어 두 학년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내용은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작품과 작가와의 연관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국민 공통 기본 기간(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동일한 목표이고, 내용 진술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히 문학 영역이 단독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학 영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의 해석과 평가 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문학 수업에서는 과도한 학습량으로 문학 작품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다. 주어진 제재 작품의 이

해를 통해서 감동 받고 이것이 인성변화와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품 수와 시간 배당을 적절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교과서 한 단원에는 소수의 작품이 실리고 작품의 작가가 명시되어 있고 지도서에 작가의 소개도 나와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다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도서에도 작가의 소개가 거의 없다.

넷째, 단원의 학습 목표에서는, 일본의 문학 수업은 소수의 작품을 여러 시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므로 작품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의 문학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없다.

한국의 문학 수업은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분량을 학습하므로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지만, 제재의 깊은 학습과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문학’ 영역의 설정 의도와는 달리 시간에 비해 작품의 길이가 길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잦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습 지도법에 익숙한 한국 아동들에게 일본의 학습 지도법으로 수업했을 때, 수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아동들이 다수의 발표와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재미있었다는 수업 반응이었다.

앞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달라져 가는 환경에 잘 적응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어 교육의 문학 영역의 취지대로 좀 더 깊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학 수업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과 문학 교육의 학습 지도법을 통해 양국의 문학 수업의 특징과 문화와의 관련성에 관해 언급해 왔다. 앞으로는 한국의 학습 지도법을 일본 아동에게 적용하여 실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수업 반응이 있을 지 살펴보고 비교 검토하여 본 논의를 더욱 발전시며 나갈 예정이다.

參考 文獻

1. 單行本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國語 學習指導書 6年下 希望』,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1992.

栗原一登ほか 25名, 『國語 6年下 希望』,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1995.

萩原昌好, 『國語教室における「賢治の表現」日本語學 9』, 明治図書院, 1997.

野口芳宏ほか 1名, 『「雨ニモマケズ」「やまなし」の授業』, 明治書版株式會社, 1997.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2001.

宮地 외 27名, 『國語 六年(上) 創造』,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2002.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小學校 國語 6年上 創造 學習指導書』,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200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별책 5)』,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9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도서 편찬 추진계획』 1999.5.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읽기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6-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2. 雜誌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賢治童話の<解析>」, 學燈社, 1992. 2.

『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 「賢治童話の手帖」, 學燈社, 1996. 5.

『교육자료 9월호(제48권 573호)』, 주식회사 한국교육출판. 2002. 9.

やまなし

宮沢 賢治 作
かすや 昌宏 絵

小さな谷川の底を写した、二枚の青い幻灯です。

一. 五月

二ひきのかにの子供らが、青白い水の底で話していました。

「クラムボン は 笑ったよ。」

「クラムボン は かぶかぶ 笑ったよ。」

「クラムボン は はねて 笑ったよ。」

「クラムボン は かぶかぶ 笑ったよ。」

上の方や横の方は、青く暗く鋼のように見えます。そのなめらかな天井を、つぶつぶ暗いあわが流れていきます。

「クラムボン は 笑っていたよ。」

「クラムボン は かぶかぶ 笑ったよ。」

「それなら、なぜクラボン は 笑ったの。」

「知らない。」

つぶつぶあわが流れていきます。かにの子供らも、ぽつぽつぽつと、続けて五、六つぶあわをはきました。それは、ゆれながら水銀のように光って、ななめに上の方へ上っていきました。

つうと銀の色の腹をひるがえして、一ひきの魚が頭の上を過ぎていきました。

「クラムボン は 死んだよ。」

「クラムボン は 殺されたよ。」

「クラムボン は 死んでしまったよ……。」

「殺されたよ。」

「それなら、なぜ殺された。」

36) 栗原一登 ほか 25名, 『國語 6年下 希望』,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1995.4~16号.

兄さんのかには、その右側の四本の足の中の二本を、弟の平べったい頭のにせながら言いました。

「分からない。」

魚がまたつうともどって、下の方へ行きました。

「クラボン は 笑ったよ。」

「笑った。」

にわかにはぱっと明るくなり、日光の黄金は、夢のように水の中に降ってきました。波から来る光のあみが、底の白い岩の上で、美しくゆらゆらのびたり縮んだりしました。あわやちいさなごみからは、まっすぐなかげの棒が、ななめに水の中に並んで立ちました。

魚が、今度はそこらじゅうの黄金の光をまるっきりくちやくちやにして、おまけに自分鉄色に変に底光りして、また上の方へ上がりました。

「お魚は、なぜああ行ったり来たりするの。」

弟のかにが、まぶしそうに目を動かしながらたずねました。

「何か悪いことをしてるんだよ。取ってるんだよ。」

「取ってるの。」

「うん。」

そのお魚が、また上からもどってきました。今度はゆっくり落ち着いて、ひれも尾も動かさず、ただ水にだけ流されながら、お口を輪のように円くしてやって来ました。そのかげは、黒く静かに底の光のあみの上をすべりました。

「お魚は……。」

そのときです。にわかには天井に白いあわが立って、青光りのまるでぎらぎらする鉄砲だまのようなものが、いきなりとびこんできました。

兄さんのかには、はっきりとその青いものの先が、コンパスのように黒くとがっているのも見ました。と思ううちに、魚の白い腹がぎらっと光って一ぺんひるがえり、上の方へ上がったようでしたが、それっきりもう青いものも魚の形も見えず、光の黄金のあみはゆらゆらゆれ、あわはつぶつぶ流れました。

二ひきはまるで声も出ず、居すくまってしまいました。

お父さんのかにが出できました。

「どうしたい。ぶるぶるふるえているじゃないか。」

「お父さん、今、おかしなものが来たよ。」

「どんなもんだ。」

「青くてね、光るんだよ。はじが、こんなに黒くとがってるの。それが来たら、お魚が上へ上っていったよ。」

「そいつの目が赤かったかい。」

「分からない。」

「ふうん。しかし、そいつは鳥だよ。かわせみというんだ。だいじょうぶだ、安心しろ。おれたちはかまわないんだから。」

「お父さん、お魚はどこへ行ったの。」

「魚かい。魚はこわい所へ行った。」

「こわいよ。お父さん。」

「いい、いい、だいじょうぶだ。心配するな。そら、かばの花が流れてきた。ごらん、きれいだろう。」

あわといっしょに、白いかばに花びらが、天井をたくさんすべってきました。

「こわいよ、お父さん。」

弟のかにも言いました。

光にあみはゆらゆら、のびたり縮んだり、花びらのかげは静かに砂をすべりました。

二、十二月

かにの子供らはもうよほど大きくなり、底の景色も夏から秋の間にすっかり変わりました。

白いやわらかな丸石も転がってき、小さなきりの形の水晶のつぶや金雲母のかけらも、流れてきて止まりました。

その冷たい水の底まで、ラムネのびんの月光がいっぱいにすき通り、天井では、波が青白い火を燃やしたり消したりしているよう。辺りはしんとして、ただ、いかにも遠くからというように、その波の音がひびいてくるだけです。

かにの子供らは、あんまり月が明るく水がきれいなので、ねむらないで外に出て、しばらくだまってあわをはいて天井の方を見ていました。

「やっぱり、ぼくのあわは大きいね。」

「兄さん、わざと大きくはいてるだい。ぼくだって、わざとならもっと大きくはける

よ。」

「はいてごらん。おや、たったそれきりだろう。いいかい、兄さんがはくから見
て おいで。そら、ね、大きいだろう。」

「大きかないや、おんなじだい。」

「近くだから、自分のが大きく見えるんだよ。そんならいっしょにはいてみよう。
いいかい、そら。」

「やっぱりぼくのほう、大きいよ。」

「本当かい。じゃ、も一つはくよ。」

「だめだい、そんなにのび上がっては。」

また、お父さんのかにがでてきました。

「もうねろねろ。おそいぞ。あしたイサドへ連れていかんぞ。」

「お父さん、ぼくたちのあわ、どっち大きいの。」

「それは兄さんのほうだろう。」

「そうじゃないよ。ぼくのほう、大きいんだよ。」

弟のかには泣きそうになりました。

そのとき、トブン。

黒い丸い大きなものが、天井から落ちてずうっとしずんで、また上へ上ってい
きました。きらきらと黄金のぶちが光りました。

「かわせみだ。」

子供らのかには、首をすくめて言いました。

お父さんのかには、遠眼鏡のような両方の目をあらん限りのばして、よくよく見
てから言いました。

「そうじゃない。あれはやまなしだ。流れていくぞ。ついていってみよう。ああ、
いいにおいだな。」

なるほど、そこらの月明かりの水の中は、やまなしのいいにおいでいっぱい
でした。

三びきは、ほかほか流れていくやまなしの後を追いました。

その横歩きと、底の黒い三つのかげ法師が、合わせて六つ、おどるようにし
て、やまなしの門いかげを追いました。

間もなく、水はサラサラ鳴り、天井の波はいよいよ青いほのおをあげ、やまな
しは横になって木の枝に引っかかって止まり、その上には、月光のにじがもかも

かあつまりました。

「どうだ、やっぱりやまなしたよ。よく熟している。いいにおいだろう。」

「おいしそうだね、お父さん。」

「待て待て。もう二日ばかり待つとね、こいつは下へしずんできく。それから、ひとりでおいしいお酒ができるから。さあ、もう帰ってねよう。おいで。」

親子のかには三びき、自分らの穴に帰っていきます。

波は、いよいよ青白いほのおをゆらゆらと上げました。それはまた、金剛石の粉をはいているようでした。

私の幻灯は、これでおしまいであります。

돌배(야마나시)

宮沢 賢治 作

팽 미향 번역

작은 계곡의 바닥을 찍은, 두 장의 파란 슬라이드입니다.

1. 5월

두 마리의 어린 게들이, 푸르스름한 물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크랑본은 웃었어.”

“크랑본은 깔깔 웃었어.”

“크랑본은 뛰며 웃었어.”

“크랑본은 깔깔 웃었어.”

위나 옆은, 푸르고 어두운 강철과 같이 보입니다. 그 매끄러운 천정을 보글보글 거품이 흘러갑니다.

“크랑본은 웃고 있었어.”

“크랑본은 깔깔 웃고 있었지.”

“그럼, 왜 크랑본은 웃었지?”

“모르겠어.”

보글보글 거품이 흘러갑니다. 어린 게들도 푹푹 계속해서 다섯·여섯 방울의 거품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면서 수은과 같이 빛나며, 비스듬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은빛의 배를 뒤집고, 한 마리의 물고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크랑본은 죽었어.”

“크랑본은 살해 되었어.”

“크랑본은 죽어버렸어…….”

“살해되었어.”

“그럼, 왜 살해되었어?”

형 게는 그의 오른쪽 네개의 다리 중 두 개를 동생의 납작한 머

리에 었으면서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또 그 사이 되돌아 와서 아래로 갔습니다.

“크랑본은 웃었어.”

“웃었어.”

갑자기 환히 밝아지고, 햇빛의 황금은 꿈과 같이 물 속으로 내려 왔습니다.

물결로부터 오는 빛의 그물이, 바닥의 하얀 바위 위에서 아름답게 흔들거리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거품과 조그만 먼지로부터 곧은 그림자 줄이 비스듬히 물 속에 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그 근처의 황금 빛을 온통 쭈글거리며, 더욱이 자신은 철빛으로 이상하게 빛나면서, 또 위로 올라 갔습니다.

“물고기는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지?”

동생 게가 눈부시다는 듯이 눈을 움직이면서 물었습니다.

“무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잡고 있어.”

“잡고 있다고.”

“응.”

그 물고기가, 또 위에서 되돌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침착하게, 지느러미도 꼬리도 움직이지 않고, 다만 물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면서 입을 공처럼 동그랗게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검고 조용히 바닥의 빛 그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물고기는…….”

그 때입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하얀 거품이 일고, 푸르게 빛나는 마치 번쩍번쩍한 총알 같은 것이 돌연 날아 들어왔습니다.

형 게는 분명히 그 파란 것의 끝이 컴퍼스와 같이 검고 뽕족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물고기의 하얀 배가 번쩍 빛나며, 한 번 뒤집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것 뿐 이제 파란 것도 물고기 모양도 보이지 않고, 빛의 황금 그물은 흔들흔들, 거품은 보글보글 흘렀습니다.

두 마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

“아빠, 지금 수상한 것이 왔어요.”

“어떤 것이었어?”

“파랗고, 빛났어요. 부리가, 이렇게 검고 뽕족했어요. 그것이 오면 물고기가 위로 올라 갔어요.”

“그 놈의 눈이 빨강이지?”

“모르겠어요.”

“흐음, 그러나, 그 놈은 새야. 물총새라고 하는데, 괜찮아, 안심해, 우리들은 상관 없으니까.”

“아빠! 물고기는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말이나, 물고기는 무서운 곳으로 갔지.”

“무서워요, 아빠.”

“됐어, 됐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 자작나무 꽃이 흘러 왔어, 이봐, 예쁘지?”

거품과 함께 하얀 자작나무 꽃잎이 천정을 가득 미끄러져 왔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동생 개도 말했습니다.

빛의 그물은 흔들흔들,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꽃잎의 그림자는 조용히 모래를 미끄러졌습니다.

2. 12월

어린 개들은 이제는 상당히 자랐고, 바닥의 경치도 여름에서 가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거나 부드러운 둥근 돌도 굴러 왔고, 조그만 오동나무 꽃모양의 수정 알갱이와 금운모의 조각도, 흘러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차가운 물 밑 바닥까지 레모네이드 병의 달빛이 가득 비쳐 보이고, 천정에서는 물결이 푸르스름한 불을 피우거나 꺼는 듯. 주위는 잠잠하고, 다만, 어딘가 멀리로부터 인 것 같은 그 물결 소리가 울려 퍼져 올 뿐입니다.

어린 개들은 달이 너무 밝고 물이 아름다워서 잠자지 않고 밖으

로 나와, 잠시 말없이 거품을 내뿜고 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거품이 커.”

“형, 일부러 크게 내뿜어잖아, 나도 일부로라면 더 크게 내뿜을 수 있어.”

“내뿜어 보렴, 봐, 고작 그 정도야, 자, 형이 내뿜을테니 보렴, 자, 크지?”

“크지 않아. 똑같잖아.”

“가까우니까, 자신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함께 내뿜어 봐, 좋지, 자.”

“역시 내가 크지.”

“정말 그럴까, 그럼, 한 개 뿜어.”

“안 돼, 그렇게 몸을 펴고 발돋움하면.”

또 아빠 게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라 자렴. 늦었어, 내일 이사도에 안 데리고 간다.”

“아빠, 우리들의 거품, 어느 쪽이 커요?”

“그건, 형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커요.”

동생 게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 풍덩.

검고 둥글고 커다란 것이, 천정에서 떨어져 쭉 가라앉고, 또 위로 올라 갔습니다.

반짝반짝 금빛이 세게 빛났습니다.

“물총새다.”

아이들 게는 목을 움츠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게는 망원경과 같은 양쪽 눈을 한껏 부릅뜨고 꼼꼼히 살핀 후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저건 돌배다. 흘러 가지. 따라가 보자. 아, 좋은 냄새로구나.”

과연, 그 근처 달빛의 물 속은, 돌배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세 마리는 둥실둥실 흘러 가는 돌배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계걸음과 바닥의 검은 세 개의 그림자와 합쳐 여섯 개, 춤 추듯이 돌배의 둥근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이윽고, 물은 졸졸 흐르고, 천정의 물결은 세차게 파란 불꽃을 올리고, 돌배는 드리누워 나뭇가지에 걸려 멈추고, 그 위에는 달빛의 무지개가 우물우물 모였습니다.

“어때, 역시 돌배야. 잘 익었어. 좋은 냄새이지.”

“맛있을 것 같아요, 아빠.”

“기다려라. 이제 이틀만 기다리면, 이 녀석은 아래로 가라앉아 오거든. 그리고 저절로 맛있는 술이 되니까. 자, 이제 돌아가서 자자, 오렴.”

부자 게 세 마리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물결은, 세차게 푸르스름한 불꽃을 흔들거리며 올라 갔습니다. 그것은 또 다이아몬드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슬라이드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부록 2. 일본 小學校 교육현장에서의 문학 교육 학습지도안 例³⁷⁾
가.學習指導計劃例(9시간)

A 案		
情景를 풍부하게 想像시키기 위한 朗讀을 重視하고, 表現의 差異·獨特함을 확실히 파악시키기 위해 視写나 썸 넣기를 도입하고, 文章에 의거한 場面이나 情景를 이미지하며 풍부히 읽는다.		
次	時	學習過程과 指導內容
一次	2	全文을 읽고, 感想을 쓰고, 學習計劃을 세운다. (1)疑問나는 것이나 感動한 것을 중심으로 感想을 쓴다. (2)感想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學習計劃을 세운다. ●발표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게 하면서, 이 작품의 각자 感動의 所在가 어디인가를 파악시킨다.
二次	5	5월과 12월의 情景를 視写, 기입, 낭독하면서, 想像이 풍부하게 이해한다. (1)(2)5월의 情景를 想像하면서 읽는다 ●물속의 모습, 계의 대화, 물고기의 모습 등을 視写시키고, 자신의 感想이나 想像한 것을 썸 넣는다. ●色彩語, 比喻, 의성어, 의태어를 여러번 音讀시킴으로써 이미지를 파악시킨다. (3)(4)12월의 情景를 想像하면서 읽는다. ●5월과 같은 視点에서 읽힌다. (5)5월과 12월을 비교하며 읽는다. ●5월과 12월이 밝음과 어둠, 움직임과 조용함으로 対照的인 世界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한다.
三次	2	作品의 主題에 다가서는 읽기를 하고, 情景를 떠올리면서 朗讀한다. (1)5월과 12월의 意味 차이를 깨닫게 하고 「돌배」라는 題目이 붙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한다. ●「돌배」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世界를 바라는 作者의 사고 방식도 알게 한다. (2)5월과 12월에 대하여, 場面이나 情景를 想像하면서 朗讀한다.

37) 光村圖書出版株式会社, 『国語 學習指導書 6年下 希望』, 光村圖書出版株式會社, 1992.

나. 學習指導의 展開例(A案)

★…發問 ■…作文活動 ♥…留意点 ◀…兒童의 反應例

第 1 次

본차시의 目標 : 全文을 읽고, 의문이 나는 것이나 감동한 것을 중심으로 제 1차 感想文을 정리할 수 있다. 또, 그것들의 교류에 의거하여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

時	學 習 活 動	指導의 具體例와 留意点
第 一 時	1時的 목표-全文을 읽고, 의문 있는 것이나 感動한 것을 中心으로 感想을 정리할 수 있다. ①題名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한다. ②全文을 通讀한다. ★場面이나 情景를 想像하면서, 읽어 보자. 의문 있는 것이나 감동한 것을 중심으로 感想을 정리해 주십시오 ③初読의 感想을 쓴다.	♥돌배리는 제목에 주목시키고, 내용을 상상시켜서, 읽을 의욕을 갖게 한다. ♥5월과 12월의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곡 바닥의 계의 시점에서 그리고 있는 것에 주목시킨다. (인상적인 곳은 , 교과서에 선을 긋게 하거나 써 넣도록 한다.)
第 二 時	2時的 목표-感想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하고, 熟讀을 위한 學習計劃을 세울 수 있다. ①情景를 想像하면서 全文을 소리내어 읽는다. ②感想을 서로 발표한다. ★쓴 感想을 発表합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文章 쓰는 법에 관해서도 느낀 점이 있다면 발표해 봅시다. ③두 장의 판란 슬라이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작품의 대략적인 구성을 알고 학습계획을 세운다. ★'두 장의 판란 슬라이드' '내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끝입니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 해 보자. ★두 가지 場面이나 情景에 관하여 이미지를 풍부하게 음미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운다.	♥발표시키거나, 남의 발표를 듣게 하면서, 이 작품의 각자 감동의 所在가 어디인가를 파악시킨다. ◀-크랑본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살해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情景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판란 빛이라든가 달빛에 관해 쓰여 있는 부분이 마음에 남았다. -계 형제가 대단히 귀여웠다. -물총새가 날아 들어온 부분이 가여웠다. ♥'이상하다' '모른다'라는 반응을 받아들여 문제 해결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여러 가지 느낌을 5월이나 12월의 각 장면과 결부짓거나 관련시킨다. ♥'아마나시'의 구성을 '두 장의 슬라이드'로서 파악시킨다.

第 2 次

본차의 목표 : 색채어, 비유, 의성어, 의태어의 아로새겨진 표현으로 부터 5월과 12월의 情景를 이미지할 수 있다. 또 明暗 動靜을 나타내는 말이 문장 중의 여기 저기에 잘 흩어져 있어,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세계가 대조적인 세계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時	学 習 活 動	指導의 具体例와 留意点
第 1 時	1時的 目標-물총새의 출현 前까지 5월의 장면을 읽고, 5월이 아름답고 밝은 계절이면서도 불길함을 예감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① ■ 5월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에 줄을 긋거나, 써 넣기를 한다. ★ 5월을 읽으면서 情景가 떠오르는 곳에 선을 긋거나,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를 써 넣어 봄시다. ② 줄을 긋거나 써 넣기를 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場面の 모습이나 情景를 서로 이야기 한다. ★ 5월의 파란 물속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것을 상상했는지 발표해 보자. ★ 개 형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주위는 어떤 모습인가 상상해 보자. ③ 5월의 물 속 모습을 낭독한다.	♥ 어디에서의 視点으로, 물 속 세계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 서술에 입각하여 파악시킨다. ♥ 표현의 特色(색채, 비유, 의성어, 의태어가 아로새겨진 표현)에 주의하여 읽히고, 밝은 장면을 파악시킨다. ♥ 인상적인 文章이나 표현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보다 풍부히 情景를 이미지시킨다. ◀ 즐거운 느낌 : 크랑본은 웃었다, 깔깔 웃었다, 뛰며 웃었다. - 밝은 느낌: 햇빛의 황금은 꿈과 같이 물속으로 내려와서..., 물결로부터 오는 빛의 그물이... - 불길한 느낌: 일순간 은빛의 배를 뒤집고 ♥ 물고기의 행동 중에, 불길한 예감이 있고 그 행동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어두운 결과를 감지시킨다. 사실적인 묘사를 알게 한다. ♥ 일순간이라는 부사를 깨닫게 하고, 대화에서 어두운 장면으로 - 轉시킨 것을 알게 한다. 재차 일순간이라 말로, 이번에는 밝은 장면으로 변화시킨 것을 알게 한다. ♥ 낭독을 많이 시켜서 말의 울림, 리듬의 경쾌함을 맛보게 한다.

第2時	2時の目標-물총새 출현후의 5월의 장면을 읽고, 5월은 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름답고 밝은 계절이지만, 물고기가 물총새에게 습격당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세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① ■물총새가 날아들었을 때의 묘사나 계 형제의 모양에 관해, 알 수 있는 부분에 줄을 긋거나 써 넣는다. ② 물총새의 출현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제의 모습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 한다. ★물총새와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계 형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빠 계의 모습이나 그 이후 수면과 물 밑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③ ■ 5월의 세계에 관해 이해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여 쓴다.	◀-번쩍번쩍한 총알 -번쩍 빛나며 한 번 뒤집고 등 ♥물고기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두 마리...꿈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의 불길한 예감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아들 계의 불안과 아빠 계의 침착함이 있는 태도를 비교하면서 어두운 장면이 일단락하는 것을 알게 한다. ♥하얀 자작나무 꽃이 흘러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파악시킨다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읽히고, 낭독시키면서 그 표현의 줄음을 맛보게 하고, 想像를 풍부히 하여 쓰게 한다.
時	学 習 活 動	指導의 具体例와 留意点
第3時	3時の目標-돌베의 낙하 前까지의 12월의 장면을 읽고, 차갑고 투명하며 조용한 물 속의 情景와 가족의 따뜻함에 관해서, 5월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① ■물 속의 모습이나 계들의 모습이 5월과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줄을 긋거나 써넣기를 한다. ② 줄 긋거나 써넣기를 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場面の 모습이나 情景를 서로 이야기 한다. ★12월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발표해보자. ★5월과 비교하여 場面の 情景이나 계 父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③ 12월의 場面이나 情景를 나타내거나, 서로 낭독한다.	♥어린 계가 자랐고, 물 밑의 경지도 여름에서 겨울 모습으로 바뀌었고, 달 밝은 밤인 것을 파악함 ♥冒頭の 情景描写에서, 달밤의 물 밑모습에 관해서 想像시키고, 5월과는 대조적인 12월의 계절감을 파악시킨다. ◀-조용하고 아름답다.'회고 부드러운 둥근돌 '그 차가운 물 속까지, 레모네이드병의 달빛이 가득 비쳐 보이고' '물결이 파란 물을 피우거나 꺼기도 하는' '주위는 잠잠하고.....물결 소리가 퍼지고' ◀밝고 한가로운 모양 '계 형제의 사이좋은 모습, 거품의 크기 비교 ♥장면이나 情景를 맛보기 위해, 들은 표현이나 文章을 여러 번 낭독시킨다. ♥빠르기, 간격(쉬어읽기)등에 주의시킨다.

第4時	4時의 目標-돌배의 낙하 후의 12월의 장면을 읽고, 기대를 갖고 즐거운 듯이 돌배를 쫓는 계父子의 모습 등, 前時의 情景를 아울러, 12월은 차갑고 조용한 물 속이면서, 희망이 있는 따뜻한 세계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① ■ 돌배를 쫓는 계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줄을 긋고, 느낀 것을 써 넣는다 ② 줄을 긋거나 써 넣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장면의 모습이나 情景를 서로 이야기 한다. ★ 돌배의 落下를 만난 父子 계의 모습, 돌배의 뒤를 쫓는 父子 계의 모습에 관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정경을 떠 올립니까? ★ 계의 父子가 돌아가는 모습과 수면의 정경은 어떻습니까? ③ ■ 12월의 세계에 관해서 이해한 것을 前時에 이해한 것과 합쳐서 간단히 정리 한다.	♥ 돌배의 落下와 물총새의 그것과 비교시켜, 그 外界에서 물 속으로 訪問의 큰 차이를 알게하고 그 상징하는 의미에 관해서 생각하게 한다. → 물총새 --- 죽음의 使者 → 돌 배 --- 평화의 使者 ♥ 계걸음 '춤추듯이.....쫓았습니다.' 계와 그림자의 우스운 정경을 파악하고, 차가운 물 속이지만 대단히 따뜻한 분위기인 것을 감지시킨다. ◀ 따뜻한 부드러운 분위기: '퐁당' '반짝반짝 금빛이 세계 빛나고' '여기 저기' - 우습다: 망원경과 같은한껏 부릅뜨고 ♥ 전체적으로 밝고 우스운 12월이다. 돌배의 芳醇한 향기가 감도는 평온한 이미지를 파악시킨다. ◀ 행복한 느낌: 세 마리는 여기저기 흘러가는 - 검은 세 개의 그림자가 합쳐서 여섯 개, 춤추듯이..... ◀ 조용하고 아름답다: 물은 졸졸 흐르고 - 천정의 물결은 세차게 파란 불꽃을 올리고 - 달빛의 무지개가 우물우물 모이고 - 세차게 파란 불꽃을 흔들거리며 올리고 -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 듯이 ♥ 5월과 12월에서는 장면이나 情景, 계의 父子 모습이 다른 것을 알게 한다.
------------	--	---

時	学 習 活 動	指導의 具体例와 留意点
第 5 時	5時の目標-5월과 12월을 대비하고, 두 가지의 세계가 대조적으로 그려진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❶ ■오월과 12월을 对比하면서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을 表로 정리한다. ❷ 表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場面이나 情景의 차이 등을 서로 이야기 한다. ★5월과 12월을 비교하여, 感想을 서로 이야기해 보자. ★개 父子의 모습이나 기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	♥계절, 물속의 모습, 계의 성장, 햇빛과 달빛이나 물총새와 돌배와의 대비 등도 파악하고 싶다. -물총새의 출현→돌배의 落下 -물고기 움직임의 描写・対語→거품비교 대화 -꿈쩍 못하다→뒤를 따라 가다 -자작나무 꽃의 묘사→물결 묘사(다이아몬드) ♥표현에 의거하여 読者の 이미지를 자유로이 발표시킨다. ♥5월은 明暗과 動과 靜을 반복하면서 죽음이라는 두려운 세계로 나아가고, 12월은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서 그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한다. ◀-물 속에는 5월과 같은 세계와 12월과 같은 세계가 있다. -5월과 12월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12월이 계들에게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총새→물고기→크랑본 돌연히 찾아온 죽음. 공포 삶의 냉엄함. -돌배→좋은 냄새. 맛있는 술. 행복감. 평온. 찾아온 행복. 평온하고 즐거운 느낌.
	❸ ■5월과 12월이 각각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 생각하고 써 보자. ★5월과 12월에서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물총새와 돌배가 갖는 이미지와 그 의미에 관해서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❹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낭독한다.	

第 3 次

본차의 目標-‘돌배’라고 하는 제목과 연관지어, 조용하고 평온한 세계를 바라는 作者의 사고 방식에 언급하면서 주제에 관해서도 정리하고, 듣는 쪽에서도 잘 알 수 있도록, 빠르기, 強弱, 간격(사이) 띄우기, 그리고 색채, 비유,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알게 하고 낭독할 수 있다.

時	學 習 活 動	指導의 具體例와 留意點
第一次	1時的 目標-제목이 ‘돌배’라고 되어 있는 이유에 관해서 생각하고, 작품의 주제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쓸 수 있다. ①제목이 ‘돌배’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발표한다 ★‘계 부자’ 라고 하는 제목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作者는 왜 ‘돌배’라고하는 제목을 붙인 것일까요? ★‘돌배’의 이미지를 ‘물총새’와 비교하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② ■‘돌배’의 주제에 관해서, ‘돌배’라는 제목과 연관지어 쓴다. ③ ■작자의 사물 보는 법과 사고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사고방식도 넣어 감상문을 쓴다.	♥계의父子가 배후 인물과 같은 형태로 두 가지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고, 아동의 시점은 그쪽으로 향해진다. 그러나, 작자의 바램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은 것이 ‘돌배’인 점을 알게 한다. ♥본래 밝고 활동적이어야 할 5월의 묘사 중에 비극을 볼 수 있고, 차갑고 어두워야 할 12월에 따뜻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한다 ♥만물 모두가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냉엄한 겨울에도, 지하, 물 밑에서는 봄을 기다리는 작은 생물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대담함, 역동감을 알게 하고, ‘돌배’ 중에서 표현하고자 한 작자의 생각을 생각하게 한다. ♥제 2차, 제 5時에서 작성한 표를 참고로 해도 된다. ♥작자의 사고법에 언급하면서, 주제에 관해서도 정리해서 쓴다.

第二次	2時の目標 5월과 12월의 情景이 듣는 쪽에도 잘 알 수 있도록, 빠르기, 강약, 간격취급, 그리고 색채, 비유,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여 낭독할 수 있다. ①前時에 쓴 감상문을 서로 발표하고, 친구의 생각을 안다. ②듣는 쪽에도 情景을 잘 알 수 있도록 낭독한다. ♥지금까지, 각 장면마다의 색채 표현 등을 파악하면서 되풀이하여 音讀해 온 것을 살려서 작품의 세계를 잘 알 수 있도록, 情景을 떠올리면서 낭독시킨다. ♥독특한 표현 효과를 살려서, 작품의 세계를 잘 알 수 있도록 情景을 떠올리면서 朗讀시킨다.
-----	---